

대법원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항만 관리 등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 무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 2(이하 '피고인 공사') ⇒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
- 피고인 1 ⇒ 피고인 공사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나. 공소사실의 요지¹⁾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피고인 공사는 A 회사 등과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이하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20. 6. 3. 08:15경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A 회사 소속 근로자인 B가 갑문 상부에서 원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B 인근에 있던 원치 프레임이 전도되어 갑문 아래로 추락하면서, B도 함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함

■ B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인인 피고인 공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은 공사 현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피고인 1은 2020. 6. 10.경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
 -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轉倒)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음
 - 갑문 추락단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음
 -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음
 -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않음

1) 피고인 공사는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유죄[피고인 1: 징역 1년 6월, 피고인 공사: 벌금 1억 원]

- ▣ 피고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함
- ▣ 피고인 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1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함

나. 원심 ➡ 무죄

- ▣ 피고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 ▣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다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가.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다. 관련 법리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법규정의 해석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라. 구체적 판단 ⇒ 피고인 공사는 도급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됨

- 피고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
 -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음
 - 피고인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인 1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B의 추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공사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임

-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의 사고 위험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B 등이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둠
- 피고인 1은 B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주일이 지난 뒤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4.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실시하였음